

01 간호대학

신임교수 임용



김덕진 교수

2019년 9월 1일 신임교수로 김덕진 교수가 임용되었다. 김덕진 교수는 한양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서 근무하였다. 한양대학교에서 간호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다수의 간호대학에서 강의하였다. 본 대학에서는 정신간호학 및 지역사회간호학 강의와 실습,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강의를 담당할 예정이며, 관심 분야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중독 등이다.

2020년 3월 1일 신임교수로 유선영 교수가 임용되었다. 유선영 교수는 한양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였고, 한양대학병원과 미국 California의 Santa Rosa Creekside Convalescent Hospital에서 근무하였다. 한양대학교에서 간호학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등에서 다수의 대학에서 강의하였다. 본 대학에서는 아동간호학 및 여성건강간호학 실습, 시뮬레이션, 해부학과 간호연구와 통계를 담당할 예정이다. 관심 연구분야는 아동의 감염병과 안전사 예방 및 관리, 인간중심돌봄 등이다.



유선영 교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성신여자대학교는 2019년 2월 14일 운정그린캠퍼스에서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간호대학 학생회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성신여대 간호대학의 시작(국립의료원 간호대학) 및 현황,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전공 특성 설명,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가능한 다양한 진로(병원간호사, 지역사회간호사, 보건교사, 보건직 공무원, 연구원, 교수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마지막 시간에는 간호학과 내의 다양한 동아리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Contents

 01 간호대학
14 교수

 08 학생
15 동문회

 12 대학원
16 졸업생 소식

13 SWANS 센터

01 간호대학

신입생 환영회



2019년 3월 5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2019학번 93명을 대상으로 신입생 개강총회가 개최되었다. 김영주 학과장도 참석하여 19학번 신입생의 입학에 축하하였다. 신입생 개강총회를 통해 19학번 학생들은 동기들과 더욱 가까워지며 상호 화합을 도모할 수 있었다. 또한,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와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열띤 교류의 장이 되었다. 특히, 학생회가 기획한 이벤트성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상품을 증정 받는 등 참여한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2020년 졸업생 및 신입생

간호학과 2020년도 2월 졸업생은 총 108명으로, COVID-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졸업식은 8월로 연기되었다. 20학번 신입생은 총 99명으로 계속되는 COVID-19 감염병 상황에 따라 온라인 입학식 및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2020학년도 1학년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간호학과 삼성 직무적성(GSAT)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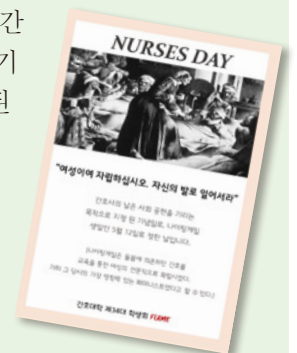
2019년 4월 6일 토요일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삼성서울병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특강 교육이 있었고, 졸업예정자 79명이 참석하여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했다.

병원별 취업특강

졸업예정자 학생들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Big 5 병원 중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3개 병원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방법, 일정 및 각 병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평정요소에 대한 특강이 실시되었다. 2019년 4월 22일 삼성서울병원, 5월 28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인사담당자는 성신여대를 방문하여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 및 상담을 진행하였고, 5월 11일 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서울성모병원 간호사 취업특강 및 상담이 이루어졌다. 참여 학생들은 선호하는 병원이 요구하는 인재상 및 취업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이에 따라 지원할 병원을 결정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간호사의 날

2019년 5월 12일은 간호사의 사회 공헌을 기리는 목적으로 지정된 '간호사의 날'로 나이팅게일 선생님의 생일을 기념일로 정하였다. 제34대 간호대학 학생회 FLAME은 이를 기리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01 간호대학

간호학과 모의면접 및 모의면접 특강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면접 특강(5월 2일 목요일)과 모의면접(5월 4일 토요일)이 진행되었다. 면접관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김혜정 강사, 이영선 강사가 초빙되었으며, 신입 간호사 채용 동향, 면접 시 태도, 병원에서 원하는 인재상, 면접 예상 질문

과 답변 시 유의사항에 대한 특강 후 학생들이 준비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모의면접을 실시하였다. 모의면접 후 학생별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실제 면접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미국 간호사 특강

2019년 5월 28일 뉴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최은실 선생님이 “간호사로 첫 발 내디딘 땅, 34년 뉴요커에게서 듣는다”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고, 5월 31일 미국에서 간호사로 활동한 박미희 선생님이 “미국 간호사에 대해 알아봐요”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었다. 해외에서 간호사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특강을 통해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준비서류, 주의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미국 호주 최신 간호 특강



2019년 10월 28일 재외한인간호사회 회장 조명숙 선생님과 전 호주한인간호사회 회장 전경희 선생님을 모시고 간호대학 1학년-3학년 학부생을 대상으로 해외 간호의 최신 동향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에 해외 간호사 취업에 관심이 있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학생들은 이 특강을 통해 미국과 호주의 간호사를 중심으로 “미국 전문간호사 제도 현황과 간호학 최신 경향”, “호주 재외간호사 활동 현황과 호주의 간호 경향”에 대해 알게 되었다.

01 간호대학

통계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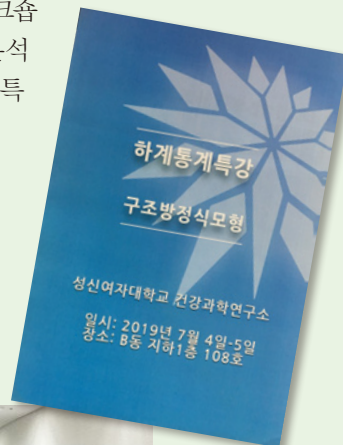
성신여자대학교 건강과학연구소에서 2019년 회귀분석, 구조모형 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통계 모형에 기초하여 사례 중심으로 실제적인 자료분석의 예시들을 제공하였고, 통계 분석 결과 및 연구 가설에 기초한 글쓰기 연습을 시행하였다. 특히, APA를 비롯한 다양한 출판 매뉴얼에 맞는 표 및 그림을 제공하는 방법을 연습하였다.

• 통계특강 주제 및 일시

- 1) 회귀 분석의 활용 및 적용: 2019년 6월 28일 10-18시, 36명 참석
- 2) 구조 모형 방정식 모형의 활용 및 적용: 2019년 7월 4일~5일 10-18시, 26명 참석

• 장소

성신여자대학교 운정그린캠퍼스 B동 108호



성신여자대학교 진로탐색캠프



2019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진로탐색캠프가 진행되었다. 총 31명의 중학생이 참석하였고, 5개 팀으로 나뉘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고, 이를 보조하기 위해 각 팀에는 조교 및 학생회 임원 1인 배정되었다. 김애리 교수는 “간호학-인간 돌봄 학문 탐색”이라는 주제로 간호학에 대해 소개하고, 간호사로서의 진로에 대해 설명하였다. 성신여대의 자랑인 SWANS 센터

에서 김애리 교수와 임경춘 교수 지도하에 “바이탈 사인 알고 측정하기”, “인체 두개골 조립 체험”이라는 주제로 함께 활력 징후를 직접 측정해보고 인체 두개골 조립을 해보는 등의 체험활동도 진행되었다. 19일에는 진로 멘토링을 실시하였고, 김동희 교수와 조정민 교수는 SWANS 센터를 소개하고 간호학 실습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01 간호대학

간호대학 부정맥 특강

2019년 10월 9일 운정그린캠퍼스 중강당에서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정맥 특강이 진행되었다. 박정왜 현 삼성서울 재직 간호사 선생님이 부정맥 치료의 최신 지견

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심장의 자극전도계, 부정맥의 발생 원인 및 기전, 부정맥의 진단과 분류, 치료에 대한 최신 지식을 얻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



제1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2019년 11월 1일 오후 1시에 진행되었다. 2학년 간호학생들이 병원실습에 나가기 전 간호사로서의 윤리와 간호 원칙을 담은 내용을 맹세하는 선서를 수행하였다. 학생들이 직접 선출한 영나이팅게일 김유진 학생의 촛불과 함께 108명의 학생들이 나이팅게일 간호 정신을 이어받을 것임을 다짐하였다. 이 날 양보경 총장님, 김애리 학장님,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님, 김완희 국

립중앙의료원 간호부장님, 박복희 국립중앙의료원 간호팀장님, 수간호사 선생님들, 정명실 간호대학 동문회장님, 간호대학교수님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셨다. 2학년 박소정 학생이 축하와 교가를 제창하였다. 학생들은 학생 간호사로서, 미래의 간호사로서 봉사과 희생정신,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사명을 마음에 되새겼다.



01 간호대학

켄터키대학 겨울 해외연수

간호대학 학생 9명이 참여한 켄터키대학 겨울 해외연수가 2019년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5주간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교류처 주관으로 이루어졌는데, 참여한 학생들은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연수비 일부를 장학금으로 수여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2019년 켄터키대학 간호대학과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이 MOU를 맺고 첫 번째로 교류한 프로그램이다. 이번에는 ESL 프로그램과 간호대학 탐방, 간호대학 학생들의 실습병원 투어 및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원생과 성신여자대학교에 있는 학생들과의 대담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으며 향후 조금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될 예정이다.

연수 참여수기

안녕하세요. 저희는 간호학과 4학년 홍경선, 윤나영입니다. 성신여대 2019학년도 동계 해외연수를 통해 미국 켄터키주립대학교로 2020년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단기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주된 목표는 ESL(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프로그램을 수료하기 위함이었지만 간호대학 덕분에 켄터키대학교 간호대학 및 병원 견학도 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음번에도 켄터키대학교 연수 기회가 생긴다면 다른 분들도 가보셨으면 하여 저희 경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켄터키주립대학교는 미국 켄터키주 렉싱턴 중심에 있으며 약대, 간호대는 미국 내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좋은 상위권 대학교입니다. ESL 프로그램은 영어를 제2 언어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speaking, listening, grammar, writing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ESL은 원래 8주 과정이지만 저희는 단기연수 기간상 4주만 수업을 받았습니

다. 학기가 시작하기 며칠 전에 먼저 도착한 저희는 시험을 통해 각 실력에 맞는 반에 배정받고 학교시설, 비자, 병원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4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모든 과목의 수업을 이수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을 마친 후, 단기간 수업을 들어 눈에 띄게 실력이 향상된 것은 아니지만 망설임 없이 외국인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초반과 달리 수업 내용 중 모르는 것을 부끄럼 없이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나 발표, 과제, 에세이 모두 영어로 쓰다 보니 작문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과 지내며 각 나라의 세세한 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좋았던 점은 수업이 이른 오후에 끝나 그 이후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시간에 주로 학교 주변이나 Downtown을 둘러보고 친구들과 함께 농구 경기를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금요일과 주말에는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동굴 견학과 2박 3일 mountain hiking과 같은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반마다 교수님이 달라 수업의 질이 천차만별이었고 어떤 과목은 매일 과제가 있어 조금 부담을 느꼈습니다.

간호대학과 관련된 일정은 총 3가지였는데 켄터키대학교 간호대학 정미숙 교수님께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저희를 잘 챙겨 주셔서 큰 탈 없이 연수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정미숙 교수님께서 간호대학원 DNP(Doctor of

Nurse Practitioner), Ph.D(Doctor of Philosophy in nursing science) 과정을 이수 중이신 두 분을 초대해 주셔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현 미국 간호사와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대학원 진학과 교수가 되는 과정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하여 실용적인 답변을 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일정에서는 켄터키대학교 간호대학 부학장님을 뵈어 전체적인 간호대학 커리큘럼에 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켄터키대학교 간호대학 재학생분이 간호대학 건물 투어를 진행해 주시고 어떤 교내 실습이 진행되는지와 전공 시험 등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간호대학 건물 투어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는 간호대학 재학생분들을 위한 휴식공간과 시뮬레이션 센터였습니다. 휴식공간은 안마의자, 아로마, 요가 매트 등 학생분들이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센터는 성신여자대학교 SWANS center와 비슷했지만 놀라웠던 점은 켄터키대학교 병원 내부뿐만 아니라 창밖 풍경까지 그대로 재현시켜 놓았고 사용하는 기계와 물품이 모두 동일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켄터키대학교 소속병원의 NICU(소아 중환자실), 내외과 병동, 응급실을 견학했습니다. 켄터키대학교 병원은 우리

01 간호대학

나라의 3차 병원처럼 켄터키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의 응급 환자들도 모두 해당 병원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응급실 방문 시 베드가 모자라 복도에 환자분들이 누워 있었고 종종 외상 환자들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NICU는 각 환자 당 하나의 병실이 배정되어 매우 컸고, 병실마다 환자의 상태를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장비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병실 내에 보호자를 위한 공간과 물품들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24시간 아기와 지낼 수 있었습니다. NMC 신생아 실습 중에는 볼 수 없었던 쌍둥이 전용 병실을 보았을 때는 놀랍고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NICU를 견학한 후에 질문 시간을 통해 마약중독자에게서 태어난 아기 사례와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외과 병동 또한 사생활 보장이 매우 중요하여 모두 1인실을 사용하였고 중환자 병실을 제외한 환자들의 병실은 모두 밖에서 내부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간호 데스크에서 가까운 병실일수록 중환자였고 중환자 병실은 모두 음압 병실이었습니다. 간호대학이나 병원에서 보였던 모든 것들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미국 병원 방문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놀랍고 신기한 점들이 많았는데, 저희들의 다양한 질문들에 모두 친절히 대답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궁금했던 점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투어를 진행해 주신 재학생분은 간호대학 내에 유일한 외국인인면서 한국인이셨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어 간호대학 견학 후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학교생활에 대해 듣고, 미국 간호학과와 한국 간호학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간호학부생으

로서 미국 내 병원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와 미국 임상과 한국 임상을 비교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간호사는 환자나 동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가 제1언어가 아닌 국가 출신 학생들은 영어권 사람들과 유사한 말하기 실력을 구사해야 간호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하였다고 모두 간호학과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1학년 학점을 기반으로 2학년 때 간호학과 입학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인 재학생분은 학생회와 여러 교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전공 성적도 높아서 특정 병원과 한 학기 장학금을 받는 대신 졸업 후 해당 병원에서 6개월 일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대학교를 재학 중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재학 중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의 부담을 줄여주고 졸업 후 취업 보장으로 취업에 대한 부담을 없애주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생활 중 가장 큰 차이를 느꼈던 점은 실습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습을 할 때 직접 환자에게 처치를 하지 못하고 간호사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새도입하는 것이 최대인데, 미국에서는 실습 학생마다 환자를 배정받아 간호사 선생님 지도 내에서 직접 간호 과정을 내리고 처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신규간호사가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신규여도 많은 것이 학습되어 있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인 학교 시설은 매우 좋았습니다. 캠퍼스가 굉장히 넓어 캠퍼스 내를 lime(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학생분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도서관이 총 7개인데 단과 대학별로 도서관이 따로 있고 의료 관련 도서관도 별개로 있습니다. 가장 큰 도서관은 24시간 개방이었습니다. 연수 기간 내내 인상 깊었

던 점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반려동물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문에는 문에 도달하기 전에 누르면 열리는 장치가 있었고 반려동물을 위한 개수대도 따로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묵은 기숙사 시설이 다른 기숙사보다 많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제공된 이불이 계절과 맞지 않아 몇몇 학생분들은 외투를 입고 잠을 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기숙사 매니저와 연락이 닿아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긴 날에는 점심시간이 짧아 student center 내에 있는 subway나 패스트푸드점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저녁에는 학교 근처에 있는 한식당이나 downtown 및 쇼핑몰 내 식당에 가거나 배달을 이용했습니다. 물가가 한국보다 너무 비쌌기 때문에 매번 사먹지는 않고 대형 마트나 한인 마트에서 장을 봐 와 기숙사 내 부엌에서 직접 해 먹었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스케이트장이나 오락실, 파티 등에 가는 시간은 보냈습니다. 시간이 되는 분들은 금요일과 주말을 이용해 근처 도시인 루이빌과 신시내티 등에 가기도 하였고 뉴욕으로 짧게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고 여가 시간을 보내며, 교류할 기회가 적었던 과 후배분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갈 무렵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였고, 공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위해 근처 마트와 약국을 모두 방문하였지만, 마스크가 매진되어 난감했습니다. 다행히도 마스크를 발견해 바로 구매하였고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코로나19가 퍼지기 전에 모든 단기연수 학생분들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02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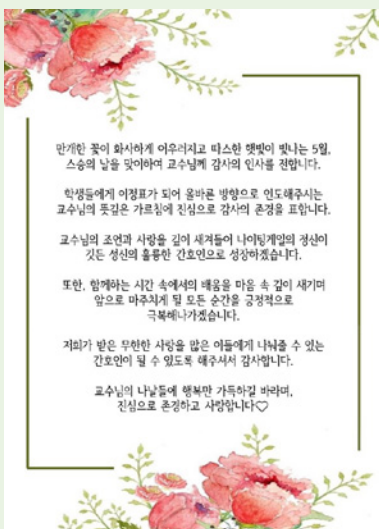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멘토링프로그램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는 간호학생들의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해 제6회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프로그램은 2019년 4월 1일 운정캠퍼스 강의실과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으며 간호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모두 참석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조를 나누어 활동하면서 선·후배 간의 교류를 촉진하였고,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의 일원으로서 친목을 도모하고 결속력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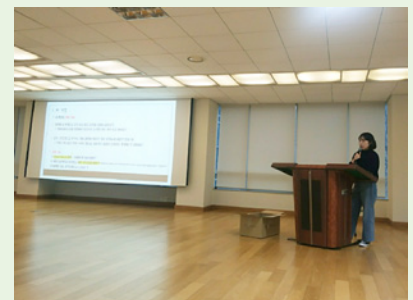


스승의 날

학생회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전체 학생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간호대학 교수님 한 분 한 분께 롤링페이퍼와 감사카드를 드리고 직접 제작한 스승의 날 감사 영상을 보내드렸다.



PRN 취업 설명회



2019년 12월 21일 토요일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PRN 취업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 설명회는 2020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3학년 학생을 위하여 4학년 선배들이 병원별 복리후생 정보, 취업준비과정, 후기 등을 취합하고 취업준비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엮은 가이드북을 배포, 강연함으로써 앞으로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취업설명회이다.

4학년 학생들은 자신이 취업을 준비하며 겪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병원의 특성, 인턴십 경험, 서류 및 인적성 합격 팁, 면접스터디 방법, 면접 분위기 등을 잊지 않고 꼼꼼히 전달하였다. 3학년 학생들은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진지하게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태도를 보였다.

02 학생

학술제

2019년 11월 15일 운정캠퍼스 대강당에서 간호대학 학술제 및 간호인의 밤이 진행되었다.

1부 학술제에서는 김애리 학장님의 인사로 행사를 시작하였다. 이후 김연희 아산병원 전 간호부원장님께서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역할과 모습, 비전에 관하여 강연을 통해, 현직에 계시는 간호사로서 간호현장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와 최신 현황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개인/동아리별로 학술적 성취를 요약한 학술포스터 발표 및 수상작 투표를 하고, 이에 관한 한술연구 발표시간을 가졌다. 서로의 연구주제를 비교하고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서로 협력하고 발전하기 위한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

2부 간호인의 밤에서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후배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이루었다. 간호대학교수님들께서 기부해 주신 물품으로 알뜰장터를 진행



하였다. 전직 수술실 간호사이자 작가인 엄지선 선생님을 초빙하여 강연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걱정과 조언의 시간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해 주셨다. '내게 별을 따다 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학교생활에서의 궁금증을 풀고, 학생들 모두에게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졸업생 표창장 수여

15학번

전체수석을 한 이다솔 학생 대한간호협회장상을, 지연정 학생은 한국간호대학협의회 우수학생상을 수상하였다.



16학번

2020년 2월 졸업한 연지은 학생(전체 수석)이 대한간호협회장상을, 이은별 학생은 한국간호과학회장상을, 최우진 학생은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장상, 박소연 학생은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장상을 수상하였다.



02 학생

학생회와 함께하는 연탄봉사



2019년 3월 16일 노원구 상계 3, 4동 주민센터에서 학생회와 함께하는 연탄봉사가 진행되었다. 약 25명의 간호대학 재학생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연탄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제34대 공동학생회장 2인의 주도 하에 학생회 인원 총 7명이 행사 진행, 정리 등을 맡아 원활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3학년 핵심술기 평가

2019년 11월 18일 SWANS 센터에서 기본간호 핵심술기 평가가 진행되었다. 3학년 전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었으며, 학생들은 핵심기본간호술 중 상처 간호와 근육주사를 교수님들 앞에서 수행하였다.



2019년 장학금 지급

2019학년도 간호대학 학생들의 교내 장학금은 중복수혜자가 포함된 수이긴 하지만, 입학 시 성적우수자에게 수여하는 난초장학생 131명, 수정장학생 9명, 지신장학생 10명을 비롯하여 성신장학금 138명, 성신사랑장학금 106명, 성신헌망장학금 34명, 어학능력향상장학금 85명, 멘토링장학금 18명으로 총 20여 종목에서 1학기 331명, 2학기 429명에게 장

학금 혜택이 주어졌다. 간호학과는 성신여대에서도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는 대학 중의 하나이다.

특히, 외부 장학금 중 간호대학 총동문회에서 5명의 학생에서 장학금을 수여하였으며, 2명의 학생이 뉴욕지부 동문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02 학생

제60회 간호사 국가고시 전원 합격



제60회 간호사 국가고시가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2020년 1월 22일 수요일에 있었다. 학생회 임원진과 고정미 교수, 김영주 교수가 국가고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위해 정성이 담긴 도시락, 핫팩 등을 간식과 함께 전달하였다. 국가고사 합격자는 2020년 2월 13일에 발표되었고 응시생 109명 전원 합격하였다.



03 대학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개강식 및 콜로키움



간호대학 대학원은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운정그린 캠퍼스 메디케어실에서 개강식을 가졌다. 개강식에서 간호학과 대학원 과정 및 교수, 학생들을 소개하였고, 대학원생들의 연구와 학

술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간호학과 대학원에서는 학기당 2-3회의 대학원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있으며, 콜로키움은 학위논문을 진행하는 대학원생들의 연구계획서 발표, 특강 등으로 진행된다.



대학원 졸업생

2019년 간호대학에서는 노인전문간호사과정 1명, 일반대학원 과정 1명이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노인전문간호사 교육과정협의회 회장상은 김남숙 학생이 수상하였다.

학위 수여일	전공 (간호학석사)	성명	논문주제
2019년 8월	노인전문 간호사과정	김남숙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치매지식 및 치매예방행위와의 관계: 복지관이용자를 중심으로
2020년 2월	일반 대학원	백미희	간호 자율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스트레스와 간호전문직관의 매개 효과



04 SWANS 센터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생들과 간호학과 학생들의 공동실습

2019년 4월 12일 중앙대 의대생 100명과 성신여대 간호대 4학년 학생 50명이 SWANS 센터에서 공동실습을 진행하였다. 간호학과 김동희 교수, 김영주 교수, 고정미 교수, 안은주 스완센터 코디네이터, 김찬웅 교수(중앙대의대)가 참여하였고, 시나리오에 의사소통하여 환자치료 및 간호를 수

행하는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환자돌봄에 있어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교정하는 것이다. 실제 임상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해 실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SWANS Center 활동

2019년 SWANS Center에서는 학생들의 실습 외에도 기관방문, 워크숍과 학회들이 개최되었다.

1월 16일	제9회 하루 만에 시뮬레이션교육 따라잡기 32명
3월 7일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시뮬레이션 교육 워크숍 10명
7월 16일	한국의료시뮬레이션학회
7월 30일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시뮬레이션 교육 워크숍 12명
10월 4일~5일	한국의료시뮬레이션학회
10월 8일	엘스비어코리아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촬영
10월 15일	동의과학대학교 간호대학 시뮬레이션 교육 워크숍 10명



05 교수

김영주 교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김영주 교수는 지난 12월 31일 국민 보건 의료의 질 이바지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교수동정

김애리	• 학장 연임
정명실	• 정신간호학회 회장 선출 • 서울시정신간호사회 감사 선출
김영주	•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양승애	• 2019년 1학기 연구년
전나미	• 2019년 1학기 연구년
임경춘	• 노인전문간호사 교육과정 협의회 회장 •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 부회장 • 2019년 한국기초간호학회 동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우수상
천주영	• 2019년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대한간호학회지) 우수심사자상 수상 • 2019학년도 우수강의 포상자로 선정 • 교수임상연수 중환자과정(세브란스병원, 2019.07.18~19.), 호스피스과정(서울성모병원, 2019.01.14.~15.) 이수

연구비 수주

• 교외

교수명	연구주제	연구비수주기관
조정민	• 노인의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Road Map Time-Traveling Intervention(RMTI) 개발 및 평가	한국연구재단
김동희	• 신생아 및 소아중환자실에서 간호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적용 및 평가	한국연구재단
김영주	• TeamSTEPPS®을 이용한 시뮬레이션기반 전문직 간 교육프로그램(Sim-IPE Program)의 개발과 확산	한국연구재단
임경춘	• 맞춤형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이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	한국연구재단
천주영	• 간호대학생을 위한 통합적 연명의료 및 사전의료의향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연구재단

06 동문회

동문회 소식

총동문회 소식

2019년 11월 1일 성신여대 운정캠퍼스 10층 식당에서 1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총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해외지부장 등 여러 해외 거주 동문들이 약 2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2년마다 세계 주요도시에서 순환하며 개최하는 OKNA (Overseas Korean Nurses Association: 재외 한인간호사회, 회장 조명숙) 주관 재외 한인간호사 대회가 2019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 대한간호협회의 초청으로 서울에서 열린 전 세계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간호사들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 자리에 뉴욕 뉴저지에서 윤영심, 안신영, 주미숙, 조명숙, 이현숙, 도옥주, 허혜경, 최미영, 장대남 동문, 로스앤젤레스에서 신태림 동문, 시카고에서 이선비, 김기란 동문, 북캐롤라이나에서 강영자 동문, 호주에서 정경희 동문이 참석하였다.

뉴욕뉴저지 지부 동문회 소식

2020년 2월 22일 뉴욕 뉴저지 지역에 거주하는 동문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70여 명의 동문들과 가족들이 모여 정보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였는데 특히 이귀자 동문(국립의료원 간호대학 3회, 1964년 졸업)에게 공로패가 수여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2019년 대 뉴욕간호협회이사 및 교육책임자로 조명숙(국립의료원 간호대학 15회, 1976년 졸업), 제1 부회장에 도옥주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18회, 1979년 졸업), 회계에 허혜경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19회, 1980년 졸업), 서기에 최미영(국립의료원 간호대학 26회, 1987년 졸업) 동문이 선임되어 뉴욕주와 뉴저지주에 근무하는 한국인 간호사들의 권익보호와 역량강화 및 소통을 위해 봉사할 예정이다.



06 동문회

김선옥, 김완숙 동문 4급 서기관으로 승진

현재 국립소록도병원 간호과장인 김선옥(NMC 24회, 1985졸) 동문과 국립부곡병원 간호과장인 김완숙(NMC 24회, 1985졸) 동문이 2019년 5월 31일 자로 보건복지부 공무원 5급에서 4급 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승진 후에도 동일한 근무처에서 보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성옥 동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장으로 승진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커뮤니케이션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한성옥(NMC 27회, 1988졸) 동문이 2급에서 1급 실장으로 승진하였다. 1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 중에서 최고 직급이다.

07 졸업생 소식

이정란 동문(국립의료원 간호대학 46회, 2007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액지원 해외학술연수생으로 선발

안녕하세요,

저는 NMC 2007년 졸업생 이정란이라고 합니다.

졸업 후 한국원자력의학원 중환자실에서 약 3년간 근무하였고, 이후 성신여대를 거쳐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Lehman College에서 BSN 과정을 거쳤습니다.

Lehman College 졸업 후에는 뉴욕 시립병원 중 하나인 Lincoln Medical Center의 Step-down Unit에서 약 1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미국에서의 간호사 생활은 문화차이 및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았지만 제가 간호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되고 싶었던 미국간호사의 삶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여 현재 대리로 재직 중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만 3년 이상 근무 시 국외학술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데, 저는 작년 (2019년)에 미국 코넬대학교를 지원하여 사내절차를 통해 선발되었습니다. 현재 코넬대학교 의과대학 (Weill Cornell Medicine)의 석사 과정에 파견 중으로 학비, 체재비 등을 연수비용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약 2년간의 석사과정으로 보건정책경제학 (Health Policy and Economics)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Health Economist (보건경제학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미국의 보건 의료 정책, 계량경제학, 통계학, 및 보건 의료 연구 설계 등에 관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과 학부 때 경제학을 전공한 친구들,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도, 일본, 중국, 짐바브웨 등 여러 나



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하는 수업은 항상 새로움으로 가득하며 열정적인 친구들로부터 많은 과제와 프로젝트로 인해 힘든 학교생활에 커다란 동기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석사과정을 마치면 저는 회사로 돌아가 다시 업무를 맡게 될 텐데 제가 이곳에서 배우고 경험한 내용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간호대학에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의 학교생활 응원합니다!